ISM Church
International Student Mission Church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Phil 4:13)

•교회선교목표

1. 각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에게 복음의 접점을 만들어 신앙 시작의 끈을 만들고 복음을 나눈다.
2. 중국 신장성의 위그르족의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 선교센터 설립.

■ 선교대상

한국과 미국에 있는 각국 유학생 또는 이민자들 & 중국신장성 위그르족

■ 선교방법

1.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지원과 정보(이민법률, 차량라이딩, 숙박정보, 일자리)등 정착에 도움을 주며 SNS(Wechat, Face book, Instagram, 인터넷 카페) 활용을 통해 교제의 접점을 만든다.

2. -매주 주일 예배모임과 센터 미팅 교제를 통한 직접선교
   -파티 형식식사제공 (젊은 층에 맞춰, 피자, 치킨,라면, 샐러드등)
   -과제물도움, 논문교정, 법률도움, 아르바이트,각종생활정보제공
   -기독영화 상영과 상영 후 퀴즈를 통한 상품(생필품)전달
   -이벤트성 행사 (의료상담, 취미강좌, 기독테마여행등)
   -취미소그룹 모임을 통해 신앙 성장을 도모

3. 중국우루무치시에 언어교육 비지니스 설립과 교육을 통한 위그르족 선교.

■ 양육방법

복음이 들어간 각 나라유학생 리더를 양육하여, 그들로 하여금 CMB 선교사로 양육
양육리더에게 일임 (1:1양육)

■ 교회조직

1. Online 선교사 (SNS홍보)
2. Offline 선교사(선교 이벤트기획 및 진행)
3. 평일 상담자 (로테이션형식)
4. 토요일미팅파티 진행간사, 양육간사
5. 주일예배 찬양인도자, 설교자, 양육간사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12 21센츄리시티빌딩 1233호 48508
www.ismchurch.org 070-7092-9716,/010-6398-2010

ISM Church

ISM 교회

Aug 2, 2026

유학생선교교회 찬양과 경배

International Student Mission Church
Sunday Praise and worship

● 매주 일요일 I Every Sunday
AM 11:00 KOR I PM 10:00 US I Live Worship
Kor:82) 010 6398 2010 I U.S :1) 551 404 0738
youtube@ISMChurch I www.ismchurch.org
Pastor. Ho Soub Jang I 목사 장호섭

ISM Church
International Student Mission Churc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필립 4:13)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11:00 AM

1. 찬양과 기도 **Praise & Prayer**	기도와 찬양의 시간	모두함께
2. 오늘의 성경말씀 **Scripture of the Day**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15	모두함께
3. 성경 묵상나눔 1 **Bible Share**	성경나눔	장호섭
4. 삶속 묵상나눔 2 **Bible Share**	형제, 자매들의 묵상 나눔과 기도 나눔	모두함께
5. 기도와 찬양 **Pray & Praise**	말씀관련 찬양 & 기도	모두함께
6. 교회소식 **Announcements**	교회공지 및 행사	장성
7. 마침기도 **Closing Prayer**	성경 나눔 요약 및 마침 기도	장호섭

8.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 나눔 요약 (2026 Aug 1 주일 찬양과 경배)



Pastor HS Jang

순종하는 자녀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15**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신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백 년 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개혁주의 전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고백합니다(에베소서 1:4). 반면 알미니안 전통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인간이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두 입장은 서로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산을 동쪽에서 바라보는 사람과 서쪽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풍경은 다르게 설명하지만 같은 산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시작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정'이라는 단어보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실패하기도 전에, 심지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차가운 운명론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사랑의 선언**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아이를 사랑합니다. 아이가 울기 전에 안아 주고, 배고프기 전에 먹이며, 넘어지기 전에 손을 내밉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19)
그렇다면 인간의 선택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알미니우스가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면 왜 성경은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믿으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택을 촉구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을 네 앞에 두었은즉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19)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 24:15)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요한계시록 3:20) 하나님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갓난아이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엄마가 밤새 잠을 못 자는지, 왜 아버지가 힘든 일을 마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저 사랑을 받습니다. 신앙의 초기에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성장합니다. 어느 날 부모의 굳은 손을 보고, 흰머리를 보고, 자신을 위해 흘린 눈물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아이는 말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기도의 대부분이지만,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종이 아니라 친구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라." 종은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명령만 수행하는 존재를 원하셨다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창세기 1:27).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AI와 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는 정교한 답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문장을 출력할 수는 있어도, 기쁨과 감사, 헌신을 스스로 경험하는 인격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동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도, 인간의 응답도 결국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함께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 진리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에게 주어진 믿음의 책임과 자유의지 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은 이 두 가지를 놀랍게 함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복종하라." "구원을 이루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변화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와 같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습니다. 물을 줍니다. 잡초를 제거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자라게 하는 힘은 농부가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고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는 최선을 다해 씨를 돌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우리는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화답합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인물이 있습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Amazing Grace)"을 작사한 존 뉴턴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노예무역에 참여했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느 날 그는 배를 타고 가던 중 거대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그 순간은 그의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그의 믿음은 깊은 이해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살려 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뉴턴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죽지 않았다"는 감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살리셨는가?" 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변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칼빈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다." 알미니안주의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만 하는 어린아이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youtube@ISMChurch